4차산업 혁명시대 변화 대응은 '수행'

9월 9일 전국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특별 강연

전국 한마음선원 법형제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 변화를 고찰하고 불교 내 바른 대응을 모색했다.

한마음선원부산지원 법형제회(회장 천윤덕)는 9월 9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와 불교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한마음 선원 법형제회 150여명이 참여했다. 강연은 이창수(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고통의 근원인 탐진치, 즉 인간 근본 문제는 산업발달 속에서도 변화가 없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인류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했다. 그 후 지속적인 문명의 발달로 삶은 편리해졌고 변화 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는 더욱 커지고 인간 문제의 본질적인 해답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융합과 지능화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소통 및 편리를 극대화시키겠지만 그 시스템을 주도하는 소수에 의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지도층이 정신계와 물질계를 통합해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대행 스님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닌 하나로 돌아간다'고 이미 밝히셨고 그에 합당한 수행을 제시해 주셨다. 이는 불교적 가르침이 시대를 선도하는 과학과 유리되지 않아 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모든 대응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유연한 사고력과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능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고

근본 문제 '사성제' 변화 無
수행 통한 해결법 제시 자리
물질·정신계 아는 인재 필요
지구촌 이끌 지혜 제시 당부

전제하고 "이런 대응력은 평생 학습 프로그램과 마음공부로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향상을 이룰 때 생긴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인이나 불교계 차원에서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물질과 정신계 각각 50%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절한 포교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마음선원부산지원 법형제회는 9월 9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와 불교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전국 한마음선원 법형제회는 조별 토론도 진행했다. 이후 각 지원 법형제회원들은 토론 결과를 공유했다.

거사들은 "시대 변화는 위기이자 곧 기회"라며 "가장 좋은 변화 대응법은 지금 이 순간 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마음 관법 수행으로 하루를 충실히 사는 수행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공생과 공용의 가치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령에 따른 포교 대안도 선원 차원에서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 한마음선원 법형제회와 함께 대구지원장 혜솔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울산지원, 광주지원, 문경지원, 포항지원 등 각 선원 법형제회 담당 스님 10여명이 참석했다.

혜도 스님은 "국내외 뿐 아니라 불교계 내에서도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한마음법을 공부하는 불자들이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이해와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려 의미 깊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계와 물질계가 조화를 이룬 건강한 지구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禪과 힐링의 세계, 茶에 담다

9월 23~24일 제13차 세계 선차아회 개최

선(禪)의 세계를 차에 담아 대중과 함께하는 시간이 열린다.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회장 최석환)와 사단법인 한맥인터코리아(대표 김민성)는 9월 23~24일 부산 홍법사에서 제13차 세계선차아회(이하 선차아회)를 '천년 한국차의 비전'을 주제로 개최한다.

선차아회(禪茶雅會)는 선과 힐링(healing)을 차에 담아 소개하는 세계 다인들의 수행 교류 모임이다. 이번 선차아회는 (사)한나래문화재단과 월간 〈차의 세계〉가 공동주관한다.

23일 행사는 오후 12시 초적(차잎 피리 연주)과 향도(香道), 그리고 선다무(禪茶舞)로 시작을 알린다. 이어 헌다공양과 함께 개막을 선언한다. 이날 행사는 △선차행다 발표 △장군차 묘목 증정 및 식수 △국제학술세미나 △선차걷기명상이 진행된다.

24일에는 △세계 석학들과 차에 대한 담론 △사찰음식 △찻자리 선언 △칠현금 및 수정발 연주 △한·중·일 특별 차시연 △퍼포먼스 모듬북과 필묵의 향연 △통도사 학춤 △홍법 문화힐링 음악회 등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참가자들은 500년 된 전세다완(傳世茶宛)을 감상할 수 있으며 상시 전시되는 천연염색 및 선다화 꽃꽂이도 만날 수 있다.

선차아회는 참가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동참이 가능하다. 특히 선차 걷기 명상 시간에는 차를 마신 후 수행하고 감회를 나누는 시간도 가진다. 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차 문화를 이끄는 삼국의 문화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선차아회는 2013년 11월 송광사를 시작으로 중국 난창 박원표설차수행센터와 푸젠 자국사, 일본 교토, 중국 후베이성 우한, 장쑤성 난징 등 한국·중국·일본에 위치한 차의 성지에서 꾸준히 개최됐다. (051)508-3471 하성미 기자

범어사 백중 회향 "효심이 곧 불심"

1000여 명 불자 참여… 방장 지유 스님 법문



범어사(주지 경선)는 9월 8일 설법전과 대웅전 앞마당에서 백중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부산 및 경남 불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백중을 맞아 정진한 불자들을 위해 방장 지유 스님이 특별 법문했다.

지유 스님은 "주위 환경을 마주하면 여러 생각에 사로잡힌다. 고집하고 집착하다 망상으로 인해 그 속에 묻혀 있는 마음을 잊고 만다"면서 회향 후에도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주지 경선 스님은 "정진 기도 동안 경내에서 기도하는 불자를 보며 불교가 건재하단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불은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군위 지보사,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경북 군위군 지보사(주지 혜안)는 9월 10일 삼존불 개금불사를 회향하고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증명법사인 돈관 스님은 법어에서 "오늘은 함께하여 더욱 좋은 날"이라며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원력, 발원, 기도, 서원을 불사에 동참한 인연공덕이 세세생생 부처님의 가피력이 충만하길 축원드린다"고 발원했다.

경북 군위군 군위읍 상곡길에 자리한 지보사는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말사로 경내에는 보물 제682호 3층 석탑이 있다. 지난 2010년 4대강 사업을 폐기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이 조성돼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창원 봉림사, 국가 발전 기원 봉림재

9월 8일 입재 11월 25일 회향
기간 중 다채로운 행사 개최

창원 봉림사가 국가 발전을 기원하는 '봉림재'를 시작했다.

봉림재는 11월에 열릴 수륙재대를 기준으로 초청 콘서트, 장학금 모금 바자회,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회향하는 자리다.

봉림사(회주 운남)는 9월 8일 경내 대웅전에서 제11회 봉림재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봉림재는 국운 융창 및 국가경제 발전을 기원하는 수륙대재다. 11월 25일 회향하며, 사부대중의 화합과 한해의 결실을 맺는 자리로 매년 열린다.

특징은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까지 함께 준비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된다는 것이다. 봉림사는 9월 8일 인드라 스님 초청 콘서트를 시작으로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봉림불자 가족 체육대회 △학술문화제를 개최한다.


봉림사는 9월 8일 경내 대웅전에서 제11회 봉림재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는 10월 14일 경내 마당에서 열린다. 바자회 물품은 봉림사 불자가 기증한 의류, 소형 가전제품, 그릇 등 기타 생활물품이다. 봉림사에서 만든 장류와 신선 식품도 만날 수 있다. 모든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된다.

봉림불자 가족체육대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유목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다.

또한 학술문화제는 봉림불교대학·대학원 동문회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림불교대학은 1996년 설립됐다. 매년 300여 불자들이 등록해 경남 지역 내 불교대학을 연 선구자로 손꼽힌다. 학술문화제 응모기간은 11월 10일까지로, 공모부문은 불교관련 논문, 독후감 및 사진이다. 수상자는 11월 20일 발표되며, 시상은 수륙대재를 회향하는 11월 25일 열린다.

창원 봉림사는 봉림사지 600m 아래 위치한다. 봉림사지는 통일신라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하나이다. 구산선문은 통일신라시대 달마대사의 선법을 받아 종풍을 일으킨 9개 대찰을 의미한다. 봉림사는 신라 후기 심희(審希, 855~923) 스님이 창건한 도량이다.

20년 전 봉림사는 작은 암자 크기였으나 회주 운암 스님이 산문 복원 원력을 세워 '교육·문화·복지'를 목표로 불사에 매진했다.

하성미 기자

미륵불교 대무량사, 역대선조사 제례 법회

9월 10일 법계품수 대법회 등도 봉행

사)한국미륵불교 총본산 대무량사는 9월 10일 법련 문도회에서 '제2회 역대선조사 제례 및 법계품수 대법회'와 '효사랑 큰잔치'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종정 법련 덕범 스님, 총무원장 혜봉 행범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혜봉 행범 스님은 인사말씀에서 "불교에서는 5가지 큰 은혜를 가르친다. 그중에서 '유통정법 사장지은(流通正法師長之恩)' 즉,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열반에 든 다음 스승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내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고 스스로 정진해 해탈 열반하라'고 당부하셨다"고 설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